

기술력강화를 위해 제과인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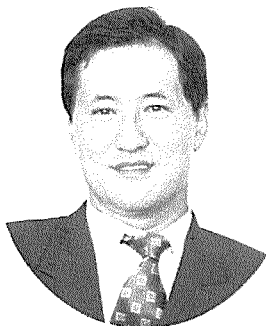
제1회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 일명 'HEIBAC '94'가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간 전국 제과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본회가 주최하고 (주)서울하인즈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격년으로 서울국제빵·과자전(SIBA)과 번갈아 개최되어 제과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회 대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회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회는 국내 제과인의 잔치에서 국제 대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세계적인 기술인과 결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하고 규모면에서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 대회로 치뤄집니다."

HEIBAC '94를 주관하는 (주)서울하인즈 서성훈사장은 이 대회가 제과업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세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한다.

HEIBAC '94는 이례적으로 대상 5백만원 포함 총 4천3백만원의 시상금을 준비하고 있어 색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시상금과 함께 서울하인즈가 부담하는 대회 총 경비는 1억원. 서울하인즈는 제1회 대회의 성과를 토대로 투자액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서울하인즈가 '소머리표마아가린' 부



서성훈
(주)서울하인즈 사장

터 시작해서 제과업계와 인연을 맺어온 지난 30여년간 제과업계 전체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술력 향상의 구체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변변한 대회라곤 SIBA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자금력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요. 서울하인즈가 연관업체로서 제과업계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파격적으로 상금을 내걸게 된 것은 경연대회의 위상을 세워 제과인들의 의욕을 부추켜 보자는 것입니다. 경연방법을 3세 기준으로 A, B팀 나눈 것도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젊고 가능성 있는 제과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것이지요. 제2회 대

회는 더욱 세분화된 경연방법을 도입해서 업계가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변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사장은 제과업계의 진정한 발전 요인은 기술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한 사람의 제과인이다. 최근에 제과업이 3D업종으로 여겨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 각종 행정규제에 묶인 가운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대다수 자영업자, 서비스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외식산업의 틈새에서 점포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업계의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짚어 나가면서도 제과업계는 기술이 모체이며 뿌리임을 강조한다.

"제과인은 빵을 잘 만드는데 혼신을 다 해야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물론 제과인은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선진기술에 신속히 접근해야겠지요. 업계 전체가 자생력을 기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관업체에서도 일체감을 가지고 기술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제과업계의 또 하나의 축제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가 성공리에 열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성훈사장의 바람은 행사 자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대회가 전제과인의 기술력향상에 구체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기대이며 목표이다. [E]